

청년의 대전 전입으로 본 조혼인율 1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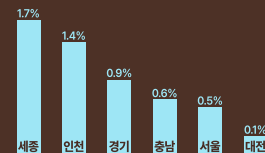
2024년 대전 혼인 전국 1위?!

2024년 대전시는 조혼인율(인구 천명당 혼인건수) 5.6%, 조출생률(인구 천명당 출생아수) 5.1%로 17개 시도 중 각각 1위와 3위였다. 지난해 대전의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높아, 혼인과 출산율 증가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데이터텔러에서는 최근 대전시의 조혼인율과 조출생률이 특히 높은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전입률과 시도 전입사유별 순이동자 수, 특히 청년순이동률을 통해 타 시도에서 대전시로의 유입 인구를 분석하여 조혼인율과 조출생률 증가의 배경을 추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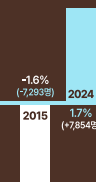
2024년 대전시 청년순유입 전국에서 6위

청년순이동률(19~39세)은 세종 1.7%, 인천 1.4%, 경기 0.9%, 충남 0.6%, 서울 0.5%, 대전 0.1% 순으로 대전의 청년 순유입(+)이 6위(561명)로 높은 편이며, 6개 지역 이외의 지역은 청년 순유입(+)보다 순유출(-)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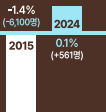


대전시 2022년부터 청년인구 순유입 발생

대전시의 청년연양인구가 줄어들었으나 청년순이동률은 2015년 -1.6%(-7,293명)에서 2024년 0.1%(561명)으로 10년 사이 1.7%(7,854명) 증가했다.



특히 2019년 -6,100명(-1.4%)이었던 청년 전입률이 2024년 561(0.1%)명으로 증가하여 5년 동안 증가세가 매우 높으며, 2022년부터 청년 순유출보다 순유입이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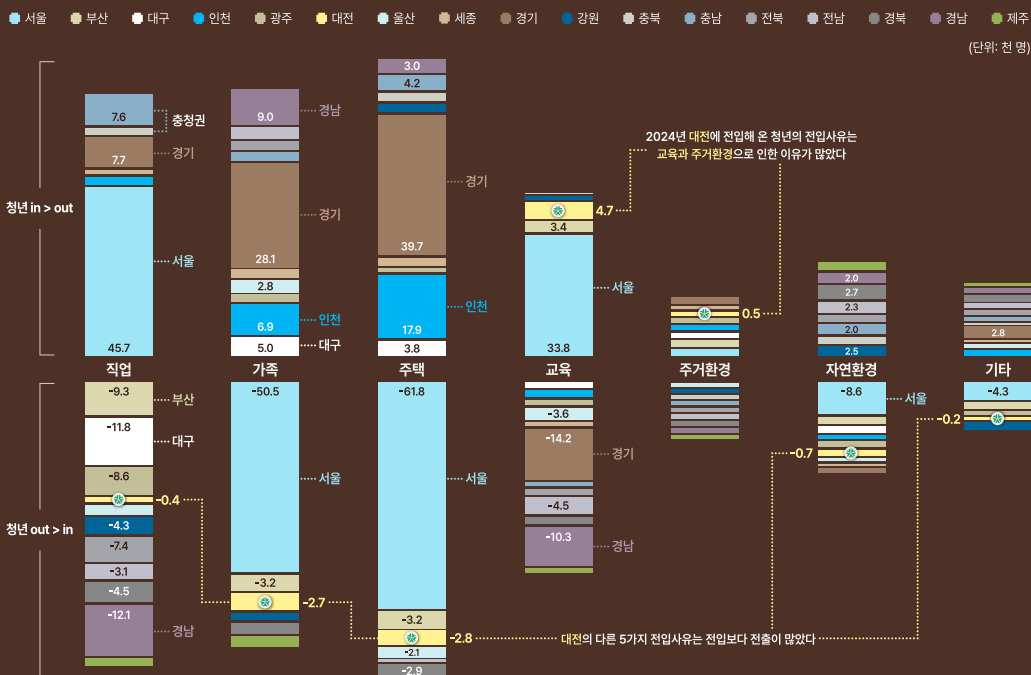


대전시 청년 전입사유 1위는 교육, 2위는 주거환경

2024년 청년(19~39세) 전입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총 7개가 있는데, 각 전입 사유별로 전입한 수에서 전출한 수를 더했을 때 전출이 많으면 '-'다

대전 청년의 전입사유는 1위 교육, 2위 주거환경 순이며, 전출사유는 1위 주택, 2위 가족 순이다.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은 1위 직업, 2위 교육 순으로 전입이 많고, 전출사유로 1위 가족, 2위 주택이 많았으나, 경기는 서울과 반대로 전입사유가 1위 주택, 2위 가족 순이다.

청년 전입사유별 순이동자 수(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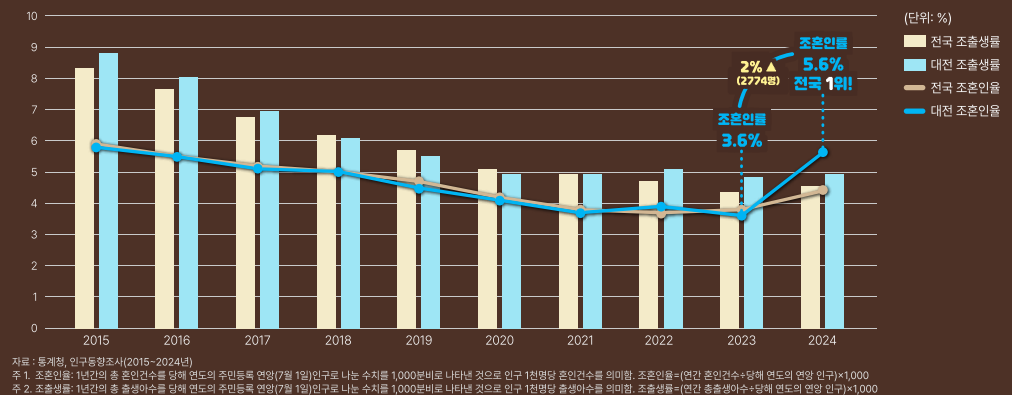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4)
주 1. 청년 순이동자 수 = 청년인구(19~39세)의 전입-전출(전출 순이동률=0)
주 2.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경우 -부호로 표기함
주 3. 전입사유: 직업(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주택 구입, 계약 만료, 임대 재계약 등), 교육(대학, 학업, 자녀교육 등), 주거환경(교육, 문화편의시설 등),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기타

대전시 조혼인율 전국 1위(전년 대비 1.5배 증가)

2024년 조혼인율은 대전 5.6%로 전국 평균보다 1.2% 높으며, 전국 1위이다. 특히, 대전의 조혼인율은 2023년 3.6%(5,212명)에서 2024년에 5.6%(7,986명)로 전년 대비 2%(2,774명) 증가했다. 2024년 조출생률은 전국 4.7%, 대전 5.1%로 전국 평균보다 0.4% 높으며, 전국 3위이다.

전국 대비 대전시 조출생률 및 조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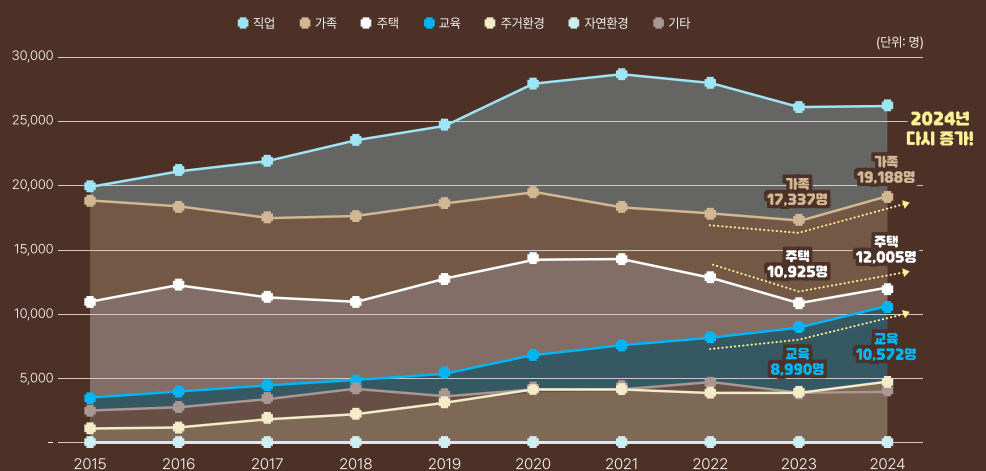


지난 10년 동안 대전으로 전입해 온 청년은 직업, 가족이 주요 이유

교육을 대전으로 전입하는 사유로 선택한 청년들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직업과 가족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입사유지만, 2020년 이후 다소 하락세였는데, 2024년 다시 증가한 특징이 있다.

대전시 청년의 전입은 2015년 57,366명에서 2024년 76,993명으로 10년간 19,627명(34.2%) 증가했으며, 2023년 73,938명에서 2024년 76,993명으로 5,055명(7.0%) 증가했다. 대전시 10년간 청년 전입사유의 경우 1위 직업, 2위 가족, 3위 주택, 4위 교육 5위 자연환경, 6위 기타 순으로 많았다.

대전시 청년 전입사유별 전입자 수(2015-2024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5~2024년)
주 1. 청년(19~39세) 인구의 1인 이동건수
주 2. 전입사유: 직업(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주택 구입, 계약 만료, 임대 재계약 등), 교육(대학, 학업, 자녀교육 등), 주거환경(교육, 문화편의시설 등),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기타